

전북대도약, 수소산업에 희망 찾다

송하진 도지사, 완주군 방문

국내 수소산업 선도업체
일진복합소재 방문해
“수소충전소 연내 설치 노력”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찾아 생산능가와 간담회도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시군 방문 두 번째로 완주군을 찾았다. 이날 송 지사는 미래 신성장동력 수소산업의 선도기업인 일진복합소재와 스마트 농업 성장동력인 완주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방문한 곳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선도기업인 일진복합소재이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북도 역시 2030년 수소차 1만 4천대와, 수소충전소 24개소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로드맵'을 발표해 전주와 완주를 수소산업 기반 시범도시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힘을 싣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진복합소재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승용자동차용 수소용기를 양산하는 등 첨단복합재료 제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현재는 일본 도요타와 함께 수소용기 700바(bar)를 양산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송 지사는 이곳에서 수소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탱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전라북도 수소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진복합소재 김기현 대표의 간담회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전북대도약을 향한 시군 방문으로 완주군을 찾아 박성일 군수와 함께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승용자동차용 수소용기를 양산하는 등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선도기업인 일진복합소재에서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수소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탱크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서 “현재 수소탱크를 제작하여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으나 도내에 수소충전소가 없어 수소전기차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해 안으로 완주군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 지사는 “전주현대차,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협의하여 11월까지 수소충전소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규격의 용기 개발과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상용차뿐 아니라 지게차, 선박, 철도에 사용될 제품을 이미 개발 중에 있으며 선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다양화와 신공법 적용 및

가격경쟁력 등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날 두 번째 방문지로 완주군의 대표 브랜드 정책 ‘로컬푸드’의 핵심시설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찾은 송 지사는 이충은 센터장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생산능가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10월 3,083㎡ 규모로 준공되어 학교와 공공기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으로 2017년 5월부터 강동구(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완주군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함께한 문순용 생산

능가 대표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에 전국 최초로 완주군이 선정되어 2017년부터 완주산 식재료를 서울시 강동구에 공급해 오고 있다”며 “서울시와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서 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전북도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16년 11월에 전라북도와 서울시간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도농상생 사업에 도내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민의 장 새 이름 ‘전주시민대상’ ... 시, 명칭 변경

전주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한 시민에게 수여돼 온 ‘전주시민의 장’의 명칭이 ‘전주시민대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시상부분에 환경대상과 복지대상이 추가되고 접수실적이 없고 타 제도로 보완이 가능한 애향장은 폐지하기로 했다.

수상부문 중 애향장은 폐지

전주시는 최근 ‘전주 시민의 장’의 명칭과 수상부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최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주시민의 장 50여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0년을 대표할 ‘전주시민의 장’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최종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전주시민의 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

주시민대상’으로 명칭 변경하고 ‘환경대상’과 ‘복지대상’의 2개 수상부분을 신설해 사회변화와 미래의 가치를 담기로 결정했다. 또, 수상부분 중 그동안 접수실적이 전무한 ‘애향장’의 경우 ‘명예시민제도’로 보완이 가능한 만큼 폐지하기로 했다.

총 8개 부문으로 확대된 ‘전주시민대상’은 향후 ‘전주시민의 장’ 조례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봄꽃 활짝... 덕유산에 봄이 왔어요’

복수초·괘이눈 등 개화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봄을 전해주는 야생화인 복수초와 괘이눈 등이 개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봄꽃 개화는 작년보다 비해 일주일 정도 빨리 개화를 시작했으며, 5월까지 복수초, 나도바람꽃, 처녀치마, 모데미풀, 현호색 등 다양한 봄꽃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야생화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셋길 출입 및 훼손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

20년간 보수정비 마치고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20년간의 보수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수리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일반에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지난 1998년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노후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돼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6층까지 해체수리를 결정하면서 보수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2001년부터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조사에 착수했으며, 2017년까지 원래 남아 있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했다. 최근 가설시설물의 철거와 주변정비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과정은 일반에 공개해 확인이 가능했으나, 그동안 수리를 마친 석탑의 모습은 가설 시설물로 가려 놓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는 전라북도의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는 위대한 사업으로 향후 전라북도 자존



의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 될 것이다”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역사적 유적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정비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은 오는 4월 30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 지자체, 불교계, 일반시민 등 600여명을 초청해 ‘석탑 가립 제막식’과 ‘기념법회(금산사 주관)’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